

■ 주요 기사

○ 저출산고령화 관련(7건)

조선	한국 인구 3대 재앙, 올해 한꺼번에 터진다 인구 절벽 시대... 출산연령 여성도 10년새 100만명 줄었다
동아	신생아수 역대최저, 年40만명도 위태
한경	작년 출생아 40만명 역대 최저
경향	인구 자연증가 역대 최소 '인구 감소' 위기 '에코붐 세대' 취업·주택난에 결혼 기피 영향
한겨레	연간 출생아수 40만명 붕괴 초읽기...인구 자연감소 멀지않아

○ 대기업 채용계획 관련(4건)

중앙	삼성 상반기 공채 예정대로, 내달 중 채용 공고
매경	위기 속에서도...삼성, 상반기 그룹공채
한경	[단독] 삼성, 내달 대졸 공채...계열사 사장단 인사 5월 말 이후로 늦춰 5대 그룹 상반기 공채일정 확정...채용 인원 줄어 더 '좁은문' 될 듯

○ 근로시간 단축 관련(3건)

중앙	[리셋 코리아] 하루 8시간 근무규정 없애 주 40시간 유연하게 일하자 [리셋 코리아] "주 40시간 초과 근무 말자"... 삶을 바꾼 선창산업 실험 [리셋 코리아] 휴일에 연장근무한 수당 12조 '시한폭탄'
----	--

○ 일자리 관련(2건)

조선	청탁금지법 때문에... 식당·술집 일자리 3만개 줄어
중앙	일자리 300만 개, 269만 개 ... 공약만 보면 내년 취업걱정 끝

■ 주요 칼럼 · 기고

○ 저출산고령화 관련(2건)

매경	[사설] 아이 울음 역대 최저, 너무 빨리 늙어가는 한국
경향	[사설] 사상 최저 기록한 출생아 수, 더 이상 대증요법 안된다

○ 일자리 창출 관련(1건)

한경	[문희수의 시사토크] 일자리 부족한 이유 모르시나
----	---

○ 기본소득제 관련(1건)

경향	[편집국에서] 기본소득, 내야 받는다 / 권태호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고용 복지	제목	한국 인구 3대 재앙, 올해 한꺼번에 터진다 A1면
		내용	지난해 신생아 수가 40만6300명으로 급감하면서 이르면 올해는 30만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며,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
		제목	인구 절벽 시대... 출산연령 여성도 10년새 100만명 줄었다 A2면
		내용	신생아 급락의 주된 원인은 주 출산 연령층인 25~39세 여성 숫자가 크게 준 탓. 경기 침체에 취업이 저조하면서 젊은이들이 결혼할 여건이 되지 않은 것도 주된 원인
동아	고용 복지	제목	청탁금지법 때문에... 식당·술집 일자리 3만개 줄어 B2면
		내용	작년 4분기(10~12월) 식당과 술집 일자리가 전년 대비 3만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김영란법으로 농축산물과 외식업계 생산·소비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
		제목	신생아수 역대최저, 年40만명도 위태 A1면
		내용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집계. 1년 전(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 줄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46년 만에 가장 적음
동아	고용 복지	제목	日기업들 '사내 발명 포상금' 대폭 올린다 A21면
		내용	일본 기업에서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등 사내 발명을 파격적으로 대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보도. 첨단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자 발명 포상에 인색한 보수적인 일본 기업들이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변화에 나선 것

매체명	주 제	내 용	
중앙	노동	제목	[리셋 코리아] 하루 8시간 근무규정 없애 주 40시간 유연하게 일하자 A14면
		내용	권혁 부산대 법대 교수는 "외국에선 흔히 기술집약적인 상품을 한국산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장시간 노동을 통한 착취의 산물이라 여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국격과 기업의 품격을 높이는 이유"라고 말함
		제목	[리셋 코리아] "주 40시간 초과 근무 말자"... 삶을 바꾼 선창 산업 실험 A14면
		내용	사측은 "아직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지 1년이 안 돼 효율을 논하기는 좀 이르다"면서도 "잠정 집계 결과 생산성이 15~20%가량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제목	[리셋 코리아] 휴일에 연장근무한 수당 12조 '시한폭탄' A14면
		내용	현재 국회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 당장의 충격 완화를 위한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됨. 그런데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통과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사퇴하겠다. 근로시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국회가 해소해달라"고 말함
	고용 복지	제목	[뉴스분석] 기본소득 15조·어린이집에 18조 ... 돈은 있습니까 A1면
		내용	대선주자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자원 마련 방법은 불분명.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증세가 필요한데도 구체적 방안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제목	일자리 300만 개, 269만 개 ... 공약만 보면 내년 취업걱정 끝 A6면
		내용	'벚꽃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대선 일정이 몇 달이나 앞당겨질 것이란 전제 아래 여야 각 대선후보가 앞다퉀 공약을 내놓고 있음.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입증된 '장밋빛 미래'를 내놓는 '공약'박람회라 되풀이된다는 지적
제목	삼성 상반기 공채 예정대로, 내달 중 채용 공고 E3면		
내용	삼성이 다음달 중 상반기 신규채용 공고를 낼 계획. 이재용 부회장 구속 사태에도 예년의 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셈		
매경	고용 복지	제목	메르켈, 佛푸조 회장에 전화 "獨 오펔 인수때 일자리 보장" A8면
		내용	메르켈 독일 총리가 푸조와 시트로엥 모기업인 프랑스 PSA그룹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오펔을 인수할 때 감원과 기업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임
		제목	위기 속에서도...삼성, 상반기 그룹공채 A17면
		내용	삼성그룹 공채 접수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실시하고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는 4월 하순경 치러질 전망. 최종 선발 인원은 3000~4000명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
		제목	[사설] 아이 울음 역대 최저, 너무 빨리 높아가는 한국 A35면
내용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성장잠재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자산시장과 연금제도가 흔들리며 정치사회적 불안은 고조될 것. 한국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을 되찾으려면 출산과 보육은 물론 주택, 교육, 노동, 산업정책에 이르기까지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		

매체명	주 제	내 용	
한경	고용 복지	제목	[단독] 삼성, 내달 대졸 공채...계열사 사장단 인사 5월 말 이후로 늦춰 1면
		내용	삼성그룹이 올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일정을 다음달 시작. 예년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룹 공채로 예년 수준인 3000~4000명을 뽑는다는 방침
		제목	5대 그룹 상반기 공채일정 확정...채용 인원 줄어 더 '좁은문' 될 듯 3면
		내용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은 올 상반기 대졸 공채를 예정대로 진행. 5~10대 그룹 중에선 원래 상반기 채용을 하지 않는 포스코 현대중공업 신세계를 제외하고 GS와 한화그룹이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나섬
		제목	작년 출생아 40만명 역대 최저 9면
		내용	통계청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7.3%) 감소.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저치
		제목	[문희수의 시사토크] 일자리 부족한 이유 모르시나 34면
내용	세금에서 봉급을 주는 공공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정작 세금 내는 기업을 끊임없이 공격. 일자리를 만든다며 일자리를 파괴		
경향	노동	제목	최저임금법 피하려...식비 덜어내 '기본급 턱걸이' A12면
		내용	가스 검침원 파업이 진행 중인 서울도시가스 강북5고객센터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행정직은 식비 12만 원을 주고 검침원들에게는 식비 6만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6만원은 기본급으로 돌린 것이 확인.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식비는 제외되고 기본급만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
	고용 복지	제목	인구 자연증가 역대 최소 '인구 감소' 위기 A1면
		내용	통계청이 22일 잠정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인구의 자연증가는 12만5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7200명(22.9%) 감소하며 역대 최소를 나타냄. 이런 추세가 계속돼 태어나는 아이보다 죽는 사람이 많아지면(자연감소) 인구는 본격적으로 줄어들게 됨
		제목	육아휴직 4명 중 1명, 한 달 안에 퇴직 A11면
		내용	출산휴가 이용자 10명 중 1명, 육아휴직 이용자 4명 중 1명은 휴가·휴직 종료 후 한 달 안에 퇴직하는 것으로 분석. 연구진은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노동시장 내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제목	'에코붐 세대' 취업·주택난에 결혼 기피 영향 A11면
내용	지난해 국내 인구증가율이 급감한 배경에는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신생아 수는 역대 최소로 떨어졌으며, 사망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치솟아		
제목	[사설]사상 최저 기록한 출생아 수, 더 이상 대증요법 안된다 A31면		
내용	교육비·양육비, 고용불안정 등 경제적 요인은 물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여성의 사회진출과 임신·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문제가 풀려야 저출산 문제는 해결		

매체명	주 제	내 용	
한겨레	고용 복지	제목	연간 출생아수 40만명 붕괴 초읽기…인구 자연감소 멀지않아 12면
		내용	통계청 2016년 출생·사망통계 발표에 따르면 40만6천명으로 역대 최소. 10년간 예산 80조원 부었는데 초저출산국가. 인구 자연증가는 1981년 63만명서 지난해 12만명
		제목	[편집국에서] 기본소득, 내야 받는다 / 권태호 27면
		내용	기본소득이 '기본'이 되려면 1인당 월 5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전국민에게 제공하면, 연 300조원. 올해 예산이 400조원. 이 글을 보는 사람이라면 아마 '기본소득'보다 '기본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할 것

<끝>